

오랜 서사 담긴 가옥의 재탄생

한식-양식-일식 혼재
'동구 인문학당' 개관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활용

고택에 담긴 이야기 주목

공공미술 범위 확대 의의

목포 근대문화역사관, 포항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유명한 관광지엔 가면 볼 수 있는 특이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있다. 바로 일제강점기에 나무로 지어진 일식 가옥이나 일본과 서양 양식이 결합된 '일양 절충식' 가옥으로, '근대가옥'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근대가옥은 현재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로,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상업적 공간으로 변화하며 그 의미는 점점 더 퇴색되고 있다.

그렇게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근대가옥이 광주 동구에서 '인문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재탄생했다. 주인공은 70여 년 전 지어져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동명동의 고택, 일명 박옥수 가옥. 서양식 본채와 한옥식 안채, 건물 내부는 일본식으로 건축돼 한식, 양식, 일식이 혼재한 가옥 형태를 지닌 이 고택이 지난 7일 인문학당으로서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

지난 16일 찾은 인문학당은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로 집을 채워나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실제 인문학당 내 작품들은 기존 집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버린 물건들을 활용해 꾸며졌다. 상들리에나 가구 등 버려진 물건들이 업사이클링을 통해 다시 새롭게 탄생한 것. 다기, 가구, 의자 등의 작품들 또한 직접 사



지난 7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문을 연 '동구인문학당'의 옛날 가옥 모습.



동구 인문학당 입구.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조성한 인문학당 내부.

용하고 만져볼 수 있도록 해 물건에 각자의 이야기와 경험을 담아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총 38명의 작가들이 만나 아카이브, 설치, 공예,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문학당을 채웠다. 이들은 별별지역, 별별정원, 별별마루, 별별다실, 별별부엌, 별별소통 등 6개의 테마로 인

문학당을 구성했으며, 대부분의 영감을 가옥이 가진 역사와 이야기 속에서 얻었다.

별별지역은 거실과 다락방 공간을 활용해 가옥이 간직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작품을 전시하며, 정원은 마당을 배경으로 '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 별별마루는 옛날식 복도인 마

루를 다목적실로 변화시켰으며, 별별다실에서는 차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방인 별별부엌에서는 다양한 셰프들과의 콜라보를 통한 '오프닝 테이블'을 통해 지역과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별별소통은 인문학당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담아낸 기념품 및 디자인 제작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인문학당은 조형물이나 벽화 등 도시 미화 및 관광의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금세 그 빛을 잃어 버린 공공미술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지역의 특색과 가옥이 가진 의미를 학당 내부에 온전히 담아냄으로써 방문객들이 편하게 가옥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한 지점에서 공공미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인문학당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오지현 기자

전남관광 디카시 '웃음꽃 전남'



이순신대교

고정선

노량으로 가시기 전 마지막 주무신 곳
나라와 백성 살리는 길 순명(順命)으로 받든 후
큰 별 하나 낀 곳에 세계 4위 현수교
철로 만든 하프라는 웅장한 저 자태
구국의 충무 정신 하늘을 떠받들듯

“디지털 약도 약인가요?”

김재관 GIST 의생명공학과 교수
국립광주과학관, 19일 과학스쿨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욱)이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과 오는 19일 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에서 올해 첫 과학스쿨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GIST 의생명공학과 김재관 교수(사진)가 '전자디지털 약도 약인가요?'를 주제로 비약물적인 방법으로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하고자 하는 연

구사례와 디지털 의료 및 치매 치료를 위한 전자약 연구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재관 교수는 한양대학교 금속공학과 학사·석사, 미국 텍사스 주립대 알링턴, 사우스웨스턴 의대 달라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엘바인, 베크만 레이저 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쳐 GIST 의생명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침습 다중센서를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조기 선별 및 치료를 위한 전자약 개발이다.

한편 과학스쿨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 온라인 사전예약 후 현장 입장 가능하다.

입장 가능한 수는 49명으로,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성인의 경우 방역패스의무적용시설 적용에 따른 백신접종 완료자 혹은 음성증명서 소지자만 입장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4명의 청년작가가 조명한 현대 사회

전남대학교박물관 '일상 탐색전'

전남대학교박물관(관장 정금희)이 올해 첫 전시로 초대기획전 '일상 탐색전'을 내달 8일까지 개최한다.

대학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미처 알지 못했을 소중한 일상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해 기획됐으며, 강동호, 김세진, 노은영, 양나희 등 4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무의식 속 자유롭게 떠올린 환상의 이미지를

그리는 강동호 작가는 인간과 기계, 동식물 등 다양한 개체들을 동화적인 느낌으로 연결해 나간다. 강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 밝은 색채와 화풍으로 인해 친근하고 재미있는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계와 소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대인이나 내면 속 우울 등이 표현된 작품들이 많다.

김세진 작가는 일상 속 내재된 희망을 고래를 통해 형상화한다. 검은 배경과 대비되는 노란 불꽃과 같은 고래형상은 마치 온갖 상처와 혐오, 비판 등으로 점철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밝은 미래를 향한 움직임처럼 느껴진다.

노은영 작가는 일상을 구성하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얽힌 이야기들을 자연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 '이다음은 무엇'을 통해 어둡고 컴컴하게 표현한 숲을 통해 도시의 일상적인 삶 속에 여전히 잔존하는 인간의 공허함, 무력감과 상실감을 다룬다.

양나희 작가는 소외되고 버려지고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한 연민과 함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쓸모 있음과 없음, 아름다움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간극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진다. /오지현 기자



김세진 작 '너에게 닿는 순간'

www.aroma-life.co.kr

Aroma Life
기능성 속옷의 명가 | (주)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의 名家

쾌적/편한/예쁜/기능성 속옷은 “정밀” 있습니다.

아모리온

브라+슈트+거울
5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울+래깅스
5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뜨, 루디아

블랙은사 바디 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흔트러져 있는 실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1.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5개국 특허 체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2.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3.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효과

광주본사 | 전문상담 및 사업 문의: 1588-2219 | 명품관(사차문의): 070-4909-466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본점** | 전문상담 및 사업 문의: 02-882-4569 | 명품관(사차문의): 070-7726-1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